

11월 10일 뉴스 종합 정리

2008년 11월 10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中, 내수진작위해 2010년까지 4조위안 투입	중국이 내수 진작을 위해 2010년까지 4조위안(약 775조원)을 투입키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9일 보도. 중국 당국은 국내 수요진작을 위해 재정정책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고 기간시설 확충, 사회복지 등 경기 진작을 위한 주요 투자에 자금을 투입키로 결정.
美증시, 오바마 경제회생책 통(通)할까 [다우: 8,943.81pt (+ 2.85%)]	지난주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버락 오바마 당선인의 행보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음. 오바마 당선인은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중산층 구제 ▲금융위기 차단 ▲금융구제책 재점검 ▲장기성장 동력 확보 등 4가지 아젠다를 통한 정책 방향을 제시.
소비지표 `주목` (전망)	마켓워치의 집계에 따르면 10월 소매판매(14일) 감소폭은 9월 1.2%보다 훨씬 깊은 2.2%에 이를 것으로 추정. 11월 미시간대학 소비자신뢰지수(14일)는 10월의 57.6에서 56으로 떨어졌을 것으로 전망.
BIS비율 높여라. 은행들 후순위채 발행	시중은행들이 국제경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잇따라 후순위채 발행에 나섬. 후순위채 만기는 5년 6개월이며, 발행금리는 7.70%. 국민은행 8,000억원, 신한은행 5,000억원 이상 추진중.
G20 재무장관 회담 "추가 금리인하 논의중"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짐 플래허티 캐나다 재무장관은 현재 G20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주 영국은 금리 인하를 위한 중대한 결정을 내렸으며 현재도 이를 주제로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고 발표.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